

목어

‘다름’ 넘어 ‘원용’

주역의 화택규(火澤 濟) 괘는 ‘다름’, ‘어그러짐’, ‘반목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괘의 단전(象傳)을 보면 그 ‘다름’의 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남녀는 서로 다르고 어그러지지만 뜻이 통하고, 만물은 서로 다르지만 그 일이 하나로 귀결된다. 그러나 ‘다름’의 의미가 참으로 크며, 그것을 잘 써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괘를 통해서 오늘의 사회를 보면 참으로 ‘다름’이 끝까지 ‘다름’으로만 여겨져, 그것이 궁극적으로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되는 큰 이상이 실종된 듯 하다. 제일 심하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정치권일 듯싶고... 여야의 정쟁을 보면 이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라는 큰 목표를 위한 생각을 함께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각자의 이해타산에 따라 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큰 목적에 합치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있다고 믿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까지 나오는 다른 존재를 소중하게 알기 보다는, 다른 존재에 대하여 우선적 대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마음 구조를 지니고 있는 듯싶다. 다른 존재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큰 하나 됨을 지향해 가기보다는 자기를 중심으로 내세우고 남을 눌러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캐고 또 캐 들어가면 그 바탕에 남북 분단의 상황이 놓여 있다. 상대방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 버려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적개심을 키워오면 세월이 얼마였는가? 나와 다른 존재를 없애야 한다는 방식으로 살았던 세월이 형성된 왜곡된 심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법의 성품 원용하여 두 모습이 없네’ 하는 법성계의 첫 구절... 어렵게 볼 것도 없을 것 같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두 모습, 그 근본에 놓여 있는 하나의 민족을 보라는 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볼 때 돌로 나뉘어진 모습이 제대로 보이고,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다시 하나 됨을 이루는 새 역사의 장이 열리는 것은 아닐까?

성태용 (건국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정대-운산 스님 조속 매듭 ‘합의’

조-태 분규사찰 이번엔 해결될까

조계-태고종 분규사찰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것인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4일 취임인사차 방문한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운산스님과 양 종단간 목은 현안인 분규사찰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 종단은 1월 초부터 분규사찰 해결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대스님은 이 자리에서 “조계종과 태고종은 한 뿌리이며, 한국불교의 근간”이라 전제하고 “이제 될 것은 되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는 방향으로 매듭짓자. 조계종단 스님들도 같은 생각인 만큼 양 종단이 화합하는 방향으로 분규사찰 문제를 처리하자”고 밝혔다. “못 찾을 것은 빨리 포기해야 해결된다. 나는 선암사는 태고종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힌 정대 스님은 “조-태 문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종회에서 위임받아 총무원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라”고 배석한 총무부장 원택스님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운산스님은 “한국불교가 새로운 큰 틀을 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태 분규문제를 해결하자”

내년초 실무협상 ‘가속도’ 봉원사 땅 처리문제 ‘현안’

“조-태분규사찰 해결이아말로 한국 불교의 전통을 확립하고, 태고종도 전통 종단의 위상을 찾는 일인만큼 곧바로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태고종에서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91년 조계종 사회부장을 맡아 분규사찰 협상안을 내놓은 바 있는 정대스

님과 역시 태고종 실무대표였던 운산스님은 과거 양 종단이 사찰 소유권을 놓고 대립했던 역사는 역사대로 묻어버리고, 새롭게 한국불교를 써나가지는데 동의하며 손을 맞잡았다.

순천 선암사 향림사, 서울 봉원사 백련사 안장사 등 10여개 분규사찰문제는 법적 소유권은 조계종에, 점유권은 태고종이 갖고 있어 조계-태고종간의 미묘한 현안이 돼왔다.

조계종 의현 총무원장과 원주 총무원장 재임 당시 각각 협상안이 나왔으나 91년은 순천 선암사, 95년은 봉원사

대중들의 유류재산 활용에 대한 반발 때문에 좌절된 바 있다.

95년 협상안의 경우 조계종이 봉원사의 유류재산을 처분하여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증상승가대 이전 등을 생각한 반면, 봉원사 태고종 스님들은 토지의 처분은 삼보정재의 유실을 가져오는 만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사진 오른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4일 만나 분규사찰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큼 그곳에 불교병원이나 학교 같은 목적 사업을 해야 한다며 토지처분을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 그런 만큼 이번 분규사찰 해결도 중국에 가서는 봉원사 땅 처리문제가 가장 첨예한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봉원사 주지 인공스님은 “봉원사는 삼보정재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하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분규사찰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

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기회에 분규사찰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양종단 스님들의 분규사찰 해결에 대한 의지표현을 받으면서도 서로 양보와 타협이 없을 경우 예전처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행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적인 전망도 교계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buddhapia.com

그늘진 이웃위해 평생 헌신

5일 입적 법희 스님 행장

“우리가 나무라면 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우리가 물이라면 흙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우리가 돌이라면 짐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 같은 화두를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항상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 강조하고,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비행을 멈추지 않았던 법희스님(법택 명법사 회주)이 5일 입적에 들었다.

스님은 5일 저녁 11시 평택 명법사 대중들과 제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자 선정에 든 채 지긋지긋 미소로 맞이했다. 제자들이 스님의 미소를 보고 음성 공양을 올리자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한 스님은 자리에 누운 채 새벽 3시30분 평온한 모습으로 열반에 들었다.

평생 참선과 묵언수행을 해온 스님은 청량과 꾸준도 ‘나무아미타불’ 염송, 음의 고저로 대신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중스님들과 신도들은 큰스님이 아미타불을 된소리로 하면 꾸준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맑은 소리로 하면 청량으로 들었다고 한다.

비구 비구니, 네 상좌 내 상좌, 이란 사만 구별하지 않고 도움이 꼭 필요한 후학들에게 과감하게 박사과정 취득까지의 학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도 스님의 돋보이는 면모였다.

스님은 수덕사, 대승사, 수정암, 김용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는 등 생활 속에서 선 수행을 평생해온 비구니계의 대표적인 선승이다.

계율을 지켜 청정했던 스님은 86년부터 조계종 7-8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비행을 펼쳐온 비구니 원로법희 스님.

대 비구니계 수계산림의 7중사를 역임했다. 스님에게서 비구니계를 받은 비구니만도 300여명에 이른다.

엄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했던 스님은 늘 자비행을 강조하여, 항상 제자들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 것을 당부했다.

기도처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항상 내가 서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처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스님은 이렇게 대중스님과 신도들을 가르치며 법당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려운 현장에서 기도하게 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스님들과 신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평택역에서 부랑인과 실직자 12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매일 결식아동 41명의 도시락을 각 학교로 전달했다. 매년 소년소녀가장 6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네팔 대상 석가사 건립기금 지원 활동도 전개했다.

스님은 열반에 들기 며칠 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의 모습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노라. 마치 그림자에 비단웃을 입고 걸어진 것과 같이 살았노라’는 말씀

을 남겼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호응 높았다

본·말사 연수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관 아래 올해 3월부터 실시했던 ‘사찰신도회 및 신도단체 지도자 연수회’가 지난 12월 1일 신홍사 연수를 끝으로 모두 16차례의 일정을 마쳤다.

전국 24개 교구본사 중 불국사, 범어사, 관음사를 제외한 21개 본사 및 말사의 사찰신도회 임원과 신도단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수회는 355개 사찰과 39개 신도단체가 참여하는 등 의외적인 성과를 거뒀다. 조계종 전체 사찰 수는 2천여 개에 이르지만 이중 60% 가량이 본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40%의 사찰 중에서도 신도회가 있는 곳이 절반도 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도회가 구성돼 있는 사찰은 거의 대부분이 연수회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형적 성과 못지않게 연수회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신도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사찰조형이나 불교적 세계관, 환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신도 지도자로서 필요한 소양교육에 비중을 두으로써 현실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사찰들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분과토론을 벌임으로써, 지역 포교 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했다. 연수회 과정에서 신도들 스스로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도 성과 중의 하나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겼다. 연수회 참석자 대부분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함에 따른 불만을 나타냈다. 일례로, 충북 법주사 연수회의 경우 이 지역의 관심사인 ‘직지심경’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같은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다.

또 다양한 시청각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초빙,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육 효과를 반감시켰고, 직

장·직능단체의 참여가 저조해 사찰 신도회의 직장·직능 단체간의 상호 연계가 만족할 만

큼 이뤄지지 못했다. 중앙신도회는 이같은 욕구를 수렴해 내년에는 연수일정과 교육내용 및 연수회 운영방식 등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연수회 횡수나 연수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교 외에 사회정서에 부응할 수 있는 지도자상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교육내용의 다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중앙신도회 오용승 조직부장은 “내년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지역별로 신도회와 청년회, 직능단체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연수회 성과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 교구본사가 주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지역포교 활성화 기여 다양한 프로그램 ‘과제’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5000호 발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등록번호: 다-3379)
 주필: 김병규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불교소핑: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www.yosl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8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우리곁에 한발짝 성큼 다가오는 성철큰스님
 중앙일보에 6개월간 절찬리 연재된 <산은 산 물은 물 - 곁에서 본 성철스님>. 그 감동의 이야기 드디어 책으로 출간!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12

잔잔한 미소로 만나는 큰스님의 따뜻한 절간 삶

서울 푸른 기개와 고집으로 알려진 한국 선불교의 거목 성철스님. 그러나 그 뒤에는 더없이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탕글탱글한 뱃가죽에 으쓱해하고 아이들과 짓궂게 장난치는 천진함, 새로운 물건에 어린애처럼 신기해하는 모습, 제자를 호통치듯 슬쩍 감싸 안는 모습. 20년간 그분을 모신 원택스님의 눈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큰스님의 모습을 만나십시오.

연백 지음 | 각권 270쪽 내외 | 값 각 8,500원

서점에 있습니다. <http://www.gimmyoung.com> TEL 02)741-1990 **김영사**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가 묻는다.

“당신은 행복한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질문들을 달라이 라마와 하워드 커틀러가 던져본다면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 · 하워드 커틀러 | 류시화 옮김 | 351쪽 | 값 9,500원

14대 달라이 라마, 14년 가초 그를 비호하는 거의 4억 5천 5백 5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을 미소짓게 만든다. 그는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이며, 몇 명의 탁월한 영성사제의 제자이다. 왜 그는 그토록 인기 있는가? 종교를 초월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달라이 라마. 그의 단 한 분만 있어도, 당신은 정말 행복해지는 길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